

교사 87% “신설학교 시설환경 만족”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시설변화에 따른 교사 인식변화 연구

10명 중 9명 “시설 변화, 교육효과에 긍정적 영향” 응답

신설학교 교사들이 시설환경에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용석)가 수행한 학교시설변화에 따른 교사 인식변화 연구 결과다.

연구보고서는 7개 신설학교(3년내) 교사 10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7%가 시설환경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깨끗한 교실환경 ▲병난방시설 ▲특별교실 환경 ▲학교

자신 ▲급식시설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 교사 91.3%가 이같은 학교시설 변화가 교육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학습참여의욕을 높인다고 답변한 교사들도 78%에 달했다.

만족도가 높은 교육공간으로 교사들은 ▲전체 학교구조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화장실 ▲도서관 ▲일반교실 순으로 응답했다. 좁은 운동장

등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묻는 질문에 야외공간(운동장, 야외학습장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조성이 필요한 양성평등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화장실 ▲교직원 휴게실 ▲사위실 순으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기존 학교시설에 비해 신설학교가 양성평등시설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는

63%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자연채광시설(창문방향, 유리면적 등) ▲에너지 절약시설 ▲공기개선편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용 연구원은 “신설학교 신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제시와 수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후학교를 개축할 때는 학교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필요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당, 도서관 등 복합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300번 헌혈왕 탄생

전주교육지원청 이명준 주무관

‘최고명예대상’ 유공장 영예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준 주무관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유공자에게 주는 ‘최고명예대상’을 받았다.

19년간 꾸준히 헌혈한 이 주무관은 지난 3일 전주헌혈의집 효자센터에서 300회째 헌혈을 하고 헌혈 유

공자 최고명예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 주무관이 지난 19년간 헌혈한 혈액은 13리5,000ml로 성인 남성 24명의 혈액량에 달한다. 자원봉사시간으로 환산하면 1,200시간(헌혈 1회당 4시간)이다.

이 주무관은 과거 2008년, 2012년도는 헌혈에 모은 헌혈증서 150매를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 소아병동과 정읍여자중학교 학생에게 기부 하였고, 당시 정읍여중 교장의 요청으로 정읍여중 학생들에게 헌혈체험하기를 들려주며 헌혈을 장

려하기도 하였다.

이명준 주무관은 “고교시절 초코파이와 영화표를 받기 위해 처음 헌혈을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고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학생에게 헌혈증서를 기부하였을 때는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헌혈증서가 모이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부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 명예대장 등의 유공장을 수여한다.

/김민근 기자



“초등학생 되는 거야?” 2018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전 어느 초등학교에서 예비 1학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설명을 듣고 있다.

무술년 새해 전북교육 방향은?

5일 교육계획 설명회 열려

도교육청 추진 정책안내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안내를 위한 2018년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1월 5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갖는다.

오전에는 각급 학교장 및 기관장 대상 1차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담당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전, 오후 모두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직접 2018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해 실질적인 설명회가 되도록 한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주요 정책 및

과제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제시한다.

도교육청의 세부 정책과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실현,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각급 학교는 2월 말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완료해 3월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바른 영양정책 수립 위해 경주”

한국영양학회장에 전북대 차연수 교수 취임

전북대학교 차연수 교수(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사진)가 제33대 한국영양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차 교수는 2016년 한국영양학회 총회에서 2018년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월 1일부터 1년간 영양학회 회장직을 수행한다.

1967년 창립된 한국영양학회는 명실상부 국내 제일의 식품영양 관련 학회로, 국제영양학회(International Union of Nutritional Sciences, IUNS)와 아시아영양학회 연합회(Federation of Asian Nutrition Societies, FANS)의 국내



유일의 회원 학회다.

이 학회는 우리나라 식생활의 지침서인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정 및 한국인 영양섭취기준(KDRIs)의 제·개정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차 선임 회장은 1988년부터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식의 건강기능성 규명 등의 연구를 수행해 약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차 선임 회장은 “한국영양학회 회장으로서 바른 영양정보 확산 및 근거기반의 영양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군산대 ‘KNU 해커톤 연합창업캠프’ 팡파르

군산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주관으로 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회의실에서 ‘농촌창업’이라는 주제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KNU 해커톤 연합창업캠프’를 개막했다.

5일까지 열리는 이 캠프에는 농촌창업에 관심을 가진 군산대생과 LINC+사업단이 없는 군장대, 서해대, 호원대, 한국농수산대 재학생과 일반 예비창업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농촌 창업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 아이템

도출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개 팀으로 나눠 농촌창업의 실용적인 아이템 발굴과 창업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토론을 벌였다.

군산대 김공수 창업교육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군산을 중심으로 전주 등 전북도내 대학생들과 농촌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캠프에서 학생들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는 제품화를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로주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